

국어 영역

시간 : 80분

점수 : 100점



【1~2】 다음은 학생 회장의 교내 연설문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하고 등교했습니까? 저는 한창 성장할 나이인 우리 학생들이 매우 불규칙하게 식사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회장으로서 ‘아침밥, 꼭!’ 캠페인을 벌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학생회가 벌인 설문 조사에서 우리 학교 학생 10명 중 5명 가까이 아침밥을 먹지 않고 등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소년의 아침밥 결식률이 높다는 점이 우리 학교 학생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확인된 것입니다. 특히 아침밥을 거르는 학생 비율은 1학년은 37.3%에 그쳤지만 2학년 48.4%, 3학년 52.4% 등 고학년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한창 성장하는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학생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침밥을 거르는 이유로는 ‘등교 및 수면 등으로 시간이 부족해서’가 39.8%로 가장 많았습니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입시 등 학업 시간에 쫓긴 나머지 아침밥조차 거르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다음으로는 ‘평소 안 먹는 습관 때문에’가 28.1%를 차지했고 ‘귀찮아서’도 24.3%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보건협회의 연구 자료를 보면 아침 식사 여부는 학생들의 건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아침을 거르면 장시간의 공복으로 인해 폭식하게 되어 혈당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이러한 식습관은 비만이나 당뇨 등 심각한 질병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아침밥을 먹는 학생이 안 먹는 학생에 비해 성적이 좋으며 학교생활도 잘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회는 ‘아침밥, 꼭!’ 캠페인을 통해, 매주 월요일 아침에 학교 앞에서 선생님, 부모님과 함께 켄밥이나 김밥 등을 나눠주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이는 규칙적인 식사 습관의 중요성을 환기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학생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아침밥을 먹으려는 습관을 기르기 위한 노력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올해 우리 학교 학생이 규칙적인 식습관을 갖추게 된다면, 우리 학교 학생들은 좀 더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1. 다음 연설 계획 중, 위 연설문에서 실현되지 않은 것은?

- ① 캠페인을 벌이게 된 배경을 제시해야겠어.
- ② 문제 해결을 위한 청중의 노력을 강조해야겠어.
- ③ 질문을 통해 연설 내용에 대한 청중의 관심을 끌어내야겠어.
- ④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 캠페인 실시의 당위성을 강조해야겠어.
- ⑤ 다른 캠페인과의 비교를 통해 캠페인에 동참할 것을 요구해야겠어.

2. 밑글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 ㉠ 전문적인 용어의 개념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여 청중의 이해를 도운 것 같아.
- ㉡ 문제 상황을 보여주는 시각 자료를 제시하여 주장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도운 것 같아.
- ㉢ 구체적인 수치를 근거로 활용하여 주장을 제기함으로써 연설 내용의 신뢰도를 높인 것 같아.
- ㉣ 중심 화제와 관련된 긍정적인 면을 제시하여 연설 내용의 설득력을 높인 것 같아.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 최근 국회에서 입사 지원서에 학력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원자의 학력 대신 능력을 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입사 지원서에 학력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입론해 주십시오.

찬성 1 : 우리 사회는 '학력 중시 풍토'가 만연한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풍토가 생긴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학력만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잘못된 채용 시스템입니다.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학력만을 중시하는 것은 대학의 서열화를 공고히 하고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고 학력 중시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입사 지원서에 학력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사회자 :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 해 주십시오.

반대 2 : 학력을 중시하는 풍토가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하
[A] 켜는데, 입사 지원서에 학력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이러
한 현상을 막을 수 있을까요?

찬성 1 : 지금 당장 과도한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에서 학력이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는다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사교육에 몰두하는 현상은 차츰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학력이 아닌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함께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찬성 측의 의견을 잘 들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입론해 주십시오.

반대 1 : 좋은 인재를 영입하고자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학력은 지원자의 전공과 성실도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물론, 학력만을 채용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력을 기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사 지원서에 학력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면, 기업에서는 면접 등 다른 평가의 비중을 높여 지원자를 판단하고자 할 텐데 이를 통해 자질과 능력을 제대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것입니다.

사회자 : 이번에는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 해 주십시오.

찬성 2 : 학력만을 채용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차별이라는 점을
[B] 언급하셨는데, 학력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없지 않을까요?

반대 1 : 학력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고, 채용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지침을 제시한다면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위 토론의 입론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찬성 1'은 기존 방식을 금지하는 것이 여러 대안 가운데 최선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 ② '찬성 1'은 유사한 의미로 쓰인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논의의 초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 ③ '찬성 1'은 경제적인 면에서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기존 방식을 금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반대 1'은 절차의 효율성을 근거로 기존 방식을 금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 ⑤ '반대 1'은 기존 방식을 유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4.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는 상대측의 주장이 지닌 배경을 언급하면서 주장의 편파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 ② [A]는 상대측이 제시한 방안이 기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③ [A]는 상대측이 앞서 진술한 내용 일부를 확인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의 신뢰성을 판단하고 있다.
- ④ [B]는 상대측이 제시한 문제 해결 방안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⑤ [B]는 상대측의 주장이 지닌 장단점을 언급하며 자신의 주장과 비교하고 있다.

5. ㉠에 관한 토론의 내용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찬성 측은 ㉠으로 인해 학력을 중시하는 풍토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군.
- ② 찬성 측은 과도한 사교육이 유발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을 금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군.
- ③ 찬성 측은 ㉠을 금지하는 것과 더불어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함께 형성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군.
- ④ 반대 측은 ㉠이 지원자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군.
- ⑤ 반대 측은 ㉠이 차별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있군.

【6~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과학 동아리 '창공' 편집부의 요청 내용

우리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대기 환경 정책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에 대해 글을 써 주세요.

글을 쓰기 전에 떠올린 생각

- 현재 우리나라 대기 환경의 상황을 제시해야겠어. ㉠
- 대기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글을 시작해야겠어. ㉡
- 미세 먼지가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임을 제시해야겠어. ㉢
- 현재 우리나라 대기 환경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야겠어. ㉣
-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개인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제시해야겠어. ㉤

초고

만일 우리가 사는 공간의 공기가 오염되어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미세 먼지의 주요 성분인 질산염, 황산염, 금속 화합물 등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우리도 외부 활동에 제약을 받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처럼 대기 환경은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우리의 대기 환경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연일 미세 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설상가상으로 미세 먼지보다 입자가 더 작은 초미세 먼지까지 발생하여 우리의 대기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2017년에 발령된 미세 먼지 특보는 무려 85회나 된다. 이 수치는 2015년 51회, 2016년 42회 비하면 매우 높아진 것이다. 아울러 초미세 먼지도 2011년 24ug/m²에서 2016년 29ug/m²으로 증가했다.

대기를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은 중국에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이다. 한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미세 먼지의 50% 정도가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 먼지라고 한다. 물론 국내에서도 적지 않은 미세 먼지가 발생하고 있는데, 주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와 자동차 등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도 70년대의 고루한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대기 환경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서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대기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인 미세 먼지 발생 원인에 관한 연구가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고, 미세 먼지가 인간에게 미치는 위해성에 관한 연구도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정부의 각 부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국민에게 위험 수준에 따른 행동 요령을 담은 구체적 대응 매뉴얼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학생들의 건강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의 안일한 대응도 문제이다. 한편 정부의 노력과 별개로 문제 상황을 대하는 개인의 안전 불감증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대기 환경 정책을 주관하는 정부는 현재 대기 환경에 대한 과학적 [A]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정확하게 상황이 파악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화력발전소를 대형화하거나 자동차 산업 이외의 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캠페인 활동을 벌여 나가야 한다. 먼저 미세 먼지가 여러 분야에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고, 미세 먼지의 위험 정도에 따른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홍보해야 한다. 아울러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예산의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6. ㉠~㉤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7. <보기>는 학생이 초고를 쓰기 위해 수집한 일부 자료이다. ㉠~㉤의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자료 1>

㉠ 미세 먼지에는 우리 몸에 매우 해로운 질산염, 황산염, 탄소 화합물, 금속 화합물 등이 포함되어 있어 오랫동안 누적이 된다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아이에게는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그런데 이러한 미세 먼지가 최근에 ㉡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중략>

㉢ 우리나라의 대기 환경 정책은 아직도 60, 70년대의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 이후로 뚜렷한 변화를 거치지 않고 시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략>

— ○○ 신문

<자료 2>

미세 먼지와 관련된 정보는 쉽게 접할 수가 없어요. ㉣ 뉴스에서도 미세 먼지 정보를 짧은 자막 정도로만 소개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잘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미세 먼지 특보가 발령된 날에도 학교에 와 보면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아무런 얘기도 없고요. 그래서 ㉤ 체육 시간에도 그냥 운동장에 나가서 체육 활동을 해요.

— △△고교 ◇◇◇ 학생과의 인터뷰

- ① ㉠을 활용하여, 미세 먼지가 인체에 매우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대상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 ② ㉡을 구체화하기 위해, 미세 먼지로 인한 대기 오염의 심각성을 소개하는 전문가의 견해를 활용하였다.
- ③ ㉢을 활용하여, 현재의 환경 정책으로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④ ㉣을 활용하여, 미세 먼지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캠페인 활동을 벌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 ⑤ ㉤을 고려하여, 미세 먼지의 위험 수준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제시하였다.

8. <보기>는 초고를 읽은 편집부의 검토 의견과 이에 따라 학생이 수정한 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조건〉

[편집부의 검토 의견]

좋은 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를 고려하여 [A]를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한 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대기 관리 정책을 주관하는 정부는 현재 대기 환경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화력 발전소를 줄이거나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산업체 공장의 수를 줄이는 등의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① 글의 흐름에 어긋나는 문장, 정부의 예산 편성의 어려움
- ② 부적절한 어휘가 사용된 문장, 초미세 먼지 관련 정책이 없음
- ③ 문장 성분의 호응이 잘못된 문장, 미세 먼지를 줄이는 방법의 적절성
- ④ 높임 표현이 어긋나는 문장, 선진국의 미세 먼지에 관한 정책의 우수성
- ⑤ 수식 관계가 어긋나는 문장,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 간 정책 연대의 필요성

[9~10] 다음은 학생이 쓴 자기 소개서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고등학교 진학과 함께 저는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다니 기대와 설렘은 오래가지 않아 깨졌습니다. 한창 예민한 나이에 시작한 타향 생활은 기대와는 달리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그렇다고 멀리 고향에서 고생하면서 저를 걱정하시는 부모님께 저의 외로움과 고통을 털어놓을 수 없었고 어떻게든 제가 처한 힘든 상황을 제힘으로 감당해내야 했습니다.

그 때 저는 ‘나는 왜 이곳에 있는 것일까?’, ‘나는 지금 왜 힘들어하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심정으로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나의 행동을 반성도 하고 ㉡위로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날이면 시도 써 보고, 수필도 써 보고, 소설도 써 보곤 하였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글쓰기의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글쓰기는 제가 세상과 소통하는 수단이었고 누군가에게 감사를 보내는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문학은 독자에게 재미와 감동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계속해서 글을 썼고 글쓰기는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저마다 꿈꾸는 자리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글쓰기를 통해 얻은 ‘작가’로서의 꿈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직·간접적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학적 소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도 참여해보고, 전통 시장에도 가보고, 주말이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고궁이나 공원 등에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소를 찾아다니는 것이 일상이 된 지금, 처음 보는 광경이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지만, 어느 곳이든지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삶에 대해 하나씩 배워 나갈 것이며 그것을 글로 옮기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가 느낀 행복과 기쁨을 글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하는 멋진 작가가 될 것입니다.

9. 초고를 이끌어낸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을 통해 자신이 느낀 행복을 독자들에게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②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고교 생활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있었다.
- ③ 글쓰기를 반복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글쓰기가 지닌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
- ④ 여러 곳을 다니면서 다양한 소재를 얻는 것이 창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⑤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던 작가가 되기 위해 일기를 쓰기로 마음먹었다.

10. ㉠~㉤을 고쳐 쓰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문장 간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않으므로 ‘그래서’로 고쳐야겠어.
- ② ㉡ :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므로 ‘스스로를’을 첨가해야겠어.
- ③ ㉢ : 글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해치므로 삭제해야겠어.
- ④ ㉣ : 어미의 연결이 부적절하므로 ‘있지만’으로 고쳐야겠어.
- ⑤ ㉤ : 의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삭제해야겠어.

11.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자료〉

열다 [열어, 여니, 여오] ㉠

㉠ 「...을」

1. 닫히거나 잠긴 것을 트거나 벗기다.

예 가방을 열다.

2. 모임이나 회의 따위를 시작하다.

예 동창회를 열다.

㉡ 「...에 ...을」

1. 사업이나 경영 따위의 운영을 시작하다.

예 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오지에 학교를 열었다.

2.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다.

예 왕건은 이 땅에 새 왕조를 열었다

㉢ 「...에/에게 ...을」

1. ('마음'을 목적으로 하여) 자기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터놓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다.

예 그는 결국에는 아내에게 굳게 닫혔던 마음을 열었다.

2. ('입'을 목적으로 하여)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에 대하여 터놓거나 이야기를 시작하다.

예 용의자는 마침내 형사에게 입을 열었다.

닫다 [닫아, 닫으니, 닫는] ㉠

「...을」

1. 열린 문짝, 뚜껑, 서랍 따위를 도로 제자리로 가게 하여 막다.

예 뚜껑을 닫다

2. 회의나 모임 따위를 끝내다.

예 오늘 모임을 이만 닫고, 내일 다시 열기로 하겠습니다.

3. 하루의 영업을 마치다.

예 지금은 은행이 문을 닫았을 시간이다.

4. ('입'을 목적으로 하여) 굳게 다물다.

예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 ① '열다'는 의미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수가 달라지겠군.
- ② '열다'와 '닫다'는 모두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겠군.
- ③ '열다' ㉠-2와 '닫다' 2, '열다' ㉢-2와 '닫다' 4는 각각 반의 관계이겠군.
- ④ '열다'와 '닫다'는 활용할 때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하겠군.
- ⑤ '닫다' 1의 예로 '서랍을 닫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12.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에 적용된 음운 현상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1〉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과 결합할 때 그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을 '음운 변동'이라고 한다. 음운 변동에는 어느 한 소리가 다른 소리로 바뀌는 ㉠'교체', 둘 이상의 소리가 합쳐져 하나의 새로운 소리가 되는 ㉡'축약', 원래 있던 소리가 사라지는 ㉢'탈락', 없던 소리가 생겨나는 ㉣'첨가'가 있다.

〈보기 2〉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제17항 받침 'ㄷ, ㅌ(ㅎ)'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ㅗ, ㅛ]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제18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ㅅ, ㅆ, ㅈ, ㅊ, ㅌ, ㅎ), ㅂ(ㅍ, ㅑ, ㅑ, ㅑ))'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제19항 받침 'ㄹ' 뒤에 연결되는 'ㄹ'은 [ㄴ]으로 발음한다.

제20항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ㄴ]으로 발음한다.

- ① 제15항의 예로 '겉옷[거돋]'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② 제17항의 예로 '미달이[미다지]'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③ 제18항의 예로 '색연필[생년필]'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④ 제19항의 예로 '금융[금냥]'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⑤ 제20항의 예로 '칼날[칼랄]'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3. <보기>의 ㉠과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을 골라 묶은 것은?

〈조건〉

중세 국어에서는 앞에 오는 형태소의 말음이 연음될 경우 그것을 표기에 그대로 반영하는 ㉠연철 표기를 채택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형태소를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기 하지 않고 각 형태소들을 분리하여 적는 ㉡분철 표기를 채택하였다.

가. ㅁ춤내 제 ㉢쁘들 시러 퍼디(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나. 니보는 농안현 ㉣사람이니(이보는 용안현 사람이니)

다. 불휘 기픈 남근 ㉤브르매 아니 밀썸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므로)

라. 홍식이 거록ㅎ야 ㉥붉은 기운이 하늘을 썬노더니

(홍색이 거룩하여 붉은 기운이 하늘을 뚫었더니)

- | | |
|--------|--------|
| ㉠ | ㉡ |
| ① a, b | ㉡ c, d |
| ② a, c | ㉡ b, d |
| ③ b, c | ㉡ a, d |
| ④ b, d | ㉡ a, c |
| ⑤ c, d | ㉡ a, b |

【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접사가 어근의 앞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문법적인 절차를 ‘접두 파생법’이라고 하고, 접두 파생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파생어를 ‘접두 파생어’라고 한다. 접두 파생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특징을 나타낸다.

첫째로, 접두 파생법은 어근에 파생 접미사가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접미 파생법보다 생산력이 약하다. 곧 접두 파생법으로 형성된 파생어의 종류는 접미 파생법으로 이루어진 파생어의 종류보다 훨씬 적은데, 이는 각각의 접두사와 결합하는 어근이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접두 파생법에서 접두사에는 일반적으로 어근의 품사를 바꾸거나 통사 구조를 바꾸는 ‘지배적 기능’은 없고, ㉠어근의 의미를 제한하는 ‘한정적 기능’만 있다. 예를 들면, 명사 ‘개살구’는 명사 ‘살구’에 파생 접두사인 ‘개-’가 붙어 형성된 단어로, 파생어의 품사가 바뀌지 않는다. 셋째로, 접두사는 체언과 용언의 어근에만 붙는 것이 특징인데, 체언 앞에 붙는 접두사는 체언의 의미를 한정한다는 점에서 관형사와 비슷하게 기능하며, 용언 앞에 붙는 접두사는 용언의 의미를 한정한다는 점에서 부사와 비슷하게 기능한다. 또한, 같은 형태의 접두사가 체언이나 용언의 어근에 두루 붙어서 파생어를 형성하는 때도 있다. 예를 들면, 접두사 ‘덧-’은 ‘덧-저고리’처럼 체언에 붙어 파생어를 형성하기도 하고, ‘덧-붙다’처럼 용언의 어근에 붙어 파생어를 형성하기도 한다.

한편, 접두사에는 한정적 기능만 있을 뿐이지 지배적인 기능은 없는 것이 보통이지만 ㉡예외적으로 접두 파생어의 품사가 어근의 품사와 다른 것도 있다. 예를 들면, 접두 파생어 ‘메마르다’는 동사 어근인 ‘마르다’에 접두사 ‘메-’가 붙어서 만들어진 형용사이다.

1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활짝 웃는 소년의 미소에서 덧니가 눈에 보였다.
- ㉡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의 뜻을 이제야 알겠다.
- ㉢ 맑은 날씨에 거리마다 사람들이 들끓으면서 활기가 돌았다.
- ㉣ 힘겨울 때는 서로의 처지를 뒤바꿔서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 ㉤ 치사랑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내리사랑을 넘지는 못했다. 어떤 방법을 써도 치솟는 눈물을 막을 방법을 찾지 못했다.

- ① ㉠에서 ‘덧니’의 접두사 ‘덧-’은 ‘거듭된’의 뜻을 더하면서 관형사와 비슷하게 기능한다.
- ② ㉡에서 ‘선무당’의 접두사 ‘선-’은 ‘서툰’의 뜻을 더하면서 부사와 비슷하게 기능한다.
- ③ ㉢에서 ‘들끓으면서’의 접두사 ‘들-’은 ‘마구’, ‘몹시’의 뜻을 더하면서 부사와 비슷하게 기능한다.
- ④ ㉣에서 ‘뒤바꿔서’의 접두사 ‘뒤-’는 ‘반대로’, ‘뒤집어’의 뜻을 더하면서 부사와 비슷하게 기능한다.
- ⑤ ㉤에서 ‘치사랑’과 ‘치솟는’의 접두사 ‘치-’는 같은 형태의 접두사가 체언과 용언에 두루 붙어서 파생어를 형성하도록 기능한다.

15. 밑줄 친 부분이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 : 길가에 셋노란 개나리가 활짝 피었다.
㉡ : 먹기에 알맞은 정도로 과일이 잘 익었다.
- ② ㉠ : 맨손으로 암벽을 오를 정도로 힘이 좋았다.
㉡ : 막일도 도맡아 할 정도로 성실한 청년이었다.
- ③ ㉠ : 그녀는 너무 강마른 체형이어서 슬퍼 보였다.
㉡ : 그의 험난하고 알곳은 운명이 바뀌는 듯했다.
- ④ ㉠ : 젊은 사람이 엇되어 보여 마음에 들지 않았다.
㉡ : 분위기에 걸맞게 옷차림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 ⑤ ㉠ : 그 여인의 구슬픈 울음소리에 마음이 착잡했다.
㉡ : 그 선생님은 군소리를 많이 하시는 유형이었다.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기호학 탄생의 역사는 기원전 428년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기호학이란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것이고, 학문 분과로서 기호학은 기호에 대한 분석 또는 기호 체계의 기능 작용에 관한 연구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호학은 20세기에 이르러 소쉬르와 페르라는 두 명의 기호학 창시자가 등장한 후에야 비로소 논의되기 시작했다. 소쉬르의 기호학은 언어학에 기본을 두고 있고, 페르의 기호학은 논리학과 철학에 그 기본을 두고 있다. 또한, 소쉬르는 기호의 이원적 모델을 제시하였고, 페르는 기호의 삼원적 관계에 바탕을 둔 삼원론을 제시하였다.

① 소쉬르는 기호를 인간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인간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도구라고 생각했다. 기호는 기표(記表)와 기의(記意)의 두 요소의 이원적 결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았다. 기표는 무엇을 표현하기 위한 기호의 실제적인 외적 형식을 말하는 것이고, 기의는 기호가 대신하는 정신적 개념으로 의미하는 내용을 말한다. 즉 기호는 기표와 기의의 결합체로 상호작용하며 기호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의미 작용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때 전달자와 수용자 사이의 일정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미 작용과 커뮤니케이션은 서로 관련을 맺고 있으면서도 나타나는 현상에는 차이가 있다. 의미 작용은 기표와 기의의 결합 과정에서 기호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고, 커뮤니케이션은 기표를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즉, 커뮤니케이션은 메시지의 전달 과정으로 전달자와 수용자 사이의 상호 참여에 의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전달자와 수용자를 연결하는 것은 기표이고, 전달된 기표는 수신자에게 의미를 재생산할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슴에 정신적 반향을 일으키는 것은 기의이다.

이와 비해 페르는 기호의 공통된 특징을 기호를 구성하는 요소인 표상체, 기호체가 대신하는 대상체, 대상체와 기호체가 합쳐져 의미를 생산하는 해석체 사이의 관계로 보았다. 이처럼 세 요소가 서로 어울려 관계를 맺는 것을 두고 페르는 삼원적 관계라고 하였다.

먼저, 표상체는 기호체라고도 하며, 기호의 발생에서 직접 지각될 수 있는 물리적 실체를 말한다. 기호는 어떤 관계도 가지지 않는 것이며 다른 것과의 대립을 통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의 순수한 존재이다. 즉, 단순한 색이나 소리 등과 같은 실제적인 개념이다. 보통 품질 기호, 개별 기호, 법칙 기호로 구분된다. 대상체는 표상체가 지시하는 대상물 혹은 표상체가 나타내는 물리적 대상물을 말한다. 표상체보다는 좀 더 복잡하여 기호에 의해 표상되는 대상체인 직접적인 대상체와 해당 기호와 독립적으로 기호를 생산하는 역동적 대상체로 구분된다. 해석체는 주어진 표상체로부터 촉발되는 정신적 개념이다. 이는 우리가 한 기호를 접하게 될 때 우리 관념 속에서 발생하는 기호로 이해할 수 있다. 보통 해석 기호, 발화 기호, 논항 기호로 구분된다. 이러한 페르의 삼원론은 많은 학문 분야에 이론적 근거로 사용되었다. 특히 대상체는 논리학과 철학의 기초를 이해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를 위해서 페르는 대상체의 ㉠도상, ㉡지표, ㉢상징의 개념을 활용하였다.

‘도상(icon)’은 기호 자체가 대상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닮은 기호이다. 즉 어떤 기호가 객관적으로 기호의 물리적 속성과 그것의 지칭 대상이 갖는 물리적 속성 사이에 일종의 유사성이 있을 때, 그 기호는 도상으로 인정된다. 여기서 유사성이란 ‘그 기호와 닮아 보이는 이

미지나 비슷한 소리 등’으로서 시각적 유사성, 청각적 유사성, 후각적 유사성, 촉감에서의 유사성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가장 대표적인 도상 기호는 시각적 유사성에 의한 기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상은 단순히 재현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것이 무엇이든 대상과의 어떤 닮음을 통해 관계를 맺는 경우이다. 또한, 도상은 인간에게 일종의 ‘현실 효과’를 가져다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대상을 실감나게 재현함으로써 직접 마주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지표(index)’는 그 대상에 의해 실제로 영향을 받아서 그 특질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이는 대상체와 실존적 인과 관계를 이루고 있는 기호이다. 즉 지표는 도상이 그 대상과의 실제적 유사성을 기초로 하는 것과 달리, 그 대상에서 직접 유추되는 인접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손에 낀 다이아몬드 반지는 부의 지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표는 우리가 직접 지각할 수 없는 것을 하나의 대상에 의해서 지각할 수 있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지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대상물에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도상과 유사하지만, 도상처럼 자연 그대로 재현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상징(symbol)’은 기호와 대상체 사이에 어떠한 물리적 유사성이나 유추되는 인접성과 같은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상징은 사회적 약속이나 관습적 문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형이나 법칙 기호이다. 따라서 수용자는 머릿속에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상징에 대한 해석 내용을 만들게 된다.

1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호학과 다른 학문과의 차이점을 소개하고 있다.
- ② 기호에 관한 두 이론의 특징을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다.
- ③ 기호학의 발전 과정을 시기를 구분해 가며 설명하고 있다.
- ④ 기호학의 발생 배경과 미래 사회에서의 활용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기호학이 인간의 삶에 미친 영향을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분석하고 있다.

17. 윗글의 ㉠과 <보기>의 ‘예름슬레브’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예름슬레브는 기호들이 의미를 창출하는 과정을 기표와 기의를 결합하는 의미 작용 2단계 모델로 제시하였다. 이 모델에 따르면, 1단계는 기표와 기의가 연결되어 외연적 의미가 탄생하는 과정이다. 이때 하나의 기표는 하나의 기의를 갖기 때문에 기호는 한 가지 의미만을 갖는다. 2단계는 내포적 의미가 탄생하는 과정으로, 새로운 기의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기호가 사용자의 감정과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차원으로 창출된다.

- ① 기표와 기의를 활용한 2단계 모델의 현실 적용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 ② 기표와 기의의 결합 과정에서 새로운 기표가 획득될 수 있다고 하였다.
- ③ 기호가 의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기표와 기의의 결합을 전제로 하였다.
- ④ 기표가 기호화되는 과정보다 기의가 기호화되는 과정이 복잡하다고 하였다.
- ⑤ 기표와 기의 중 하나가 없더라도 의사소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18. <보기>와 ㉠~㉣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림 1]을 보고 ‘꿀꿀’하는 돼지 울음소리를 떠올렸다면, 이는 [그림 1]을 ‘도상’으로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그림 2]를 보고 권력을 떠올렸다면, 이는 [그림 2]를 ‘지표’로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그림 3]을 보고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떠올리는 예수의 사랑을 떠올렸다면, 이는 [그림 3]을 ‘상징’으로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그림 4]를 보고 화재의 위험성을 떠올렸다면, 이는 [그림 4]를 ‘지표’로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그림 5]를 보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무의식적으로 자신만의 행복한 경험을 떠올렸다면, 이는 [그림 5]를 ‘상징’으로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19.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20세기 이후의 기호학은 소쉬르의 이론을 부정하고 재해석하면서 발전하였다.
- ② 퍼스는 해석 기호, 논항 기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을 표상체라고 하였다.
- ③ 기호학은 문명의 발달이 급속도로 이루어진 그리스 시대에 본격적으로 유행하였다.
- ④ 퍼스는 표상체보다는 단순하지만, 기호에 의해 표상되는 것을 직접적 대상체라고 하였다.
- ⑤ 퍼스가 기호를 표상체, 대상체, 해석체로 구분한 것은 후대에 다른 학문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되었다.

20.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세균이 인체에 병을 일으켰다.
- ② 아이들이 한바탕 소동을 일으켰다.
- ③ 그는 기업을 일으켜 큰돈을 벌었다.
- ④ 그의 작품은 메마른 내 가슴에 큰 감동을 일으켰다.
- ⑤ 몸이 무겁고 의식이 풀어져서 그녀는 몸을 일으킬 수 없었다.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방을 맞기 몇 해 전이던가, 소 뜯어 먹일 풀마저 불질러 태우며 꼭 알맞게 말라버린 흥년이 이 근동을 휩쓸고 간 이듬해 봄, 어디 한 군데서 품 한나절 들어 샅을 받아 죽이라도 끓여 먹을 수 없어 스무 살 넘은 아들들을 질펀히 방바닥에 엮어놓은 이 어미가, 저렇게 굶겨 죽이게 될 줄 알았으면 징용에 보내줬단다고 순사들이 마름영감을 앞세우고 잡으러 나왔을 때마다 귀를 쫑그리고 지켜 피신을 하게 하지 말고, 그런 데라도 가서 넉넉히는 못 먹는다 치더라도 때나 거르지 않고 얻어먹을 수 있게 내버려둘 것을 그랬다 하며, 죽이라도 캐려고 집을 나섰다가 참봉네 마름이 관리하는 못자리 논 옆에 심은 자운영 한 줌을 뜯은 것이 화근이었다.

그것은 정말 사소한 일이었다. 처음에 물론 썩만 캐겠다고 눈독으로 들어섰던 것이었으나, 자운영이 하도 부드럽기에 그걸 한 줌 캐어 담았던 것이었는데, 달려온 마름네 머슴놈이 바구니를 빼앗아 논바닥에 놓고 납작하게 밟아서 찢어버린 것이었다. 그뿐 이 어미 몸에 손찌검 한번 하지 않은 것을 보면, 밤이면 몰래 마을 사람들이 자운영을 다 캐어 가버리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못한다고 노상 마름영감한테 꾸중을 듣곤 하여, 화가 끓을 대로 끓어 있는 그 마름네 머슴들 나름으로는 이 어미의 세 아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심히 군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데통맞고 못난 소갈머리가 그만 대성통곡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와, 방바닥에 엎드려 있는 두 아들의 가슴에 불을 질러놓고 만 것이었다.

자세히 일의 전후를 따져 묻지도 않고 먼저 뛰쳐나간 것은 큰아들 일현이었고, 다음 자초지종을 캐묻고 이를 물고 나간 것은 막동이였다. 얼마 후, 일현이 “동네방네 사람들아, 다들 좀 보소이, 풀씨 한 주 먹 뜯었다고 뵙아뿐 이 바구니 좀 보소오.”하고 소리쳤다.

이렇게 외친 것을 듣고, 저 사람들이 오늘 무슨 일을 내려고 저런다냐 하며 근심스러운 얼굴을 하고 바라대기 딸이 달려 나갔다. 둘째 아들 일현은 ㉠한나절 일해준 품삯이라 해보아야, 그도 보릿가을* 한 뒤에야 한 되를 받기로 하고, 산 너머 마을에 통장군을 수선해주러 가고 없던 참이었다.

이 무렵, 마름영감의 손가락질 하나로 아들을 징병이나 징용에 보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데다, 그 자운영 밭을 일췌거리다가 마름네 머슴들한테 머리채를 잡힌 아낙네가 또한 셀 수 없었으며, 마름이나 참봉 집에 색깔이*를 얻으러 갔다가, 이때껏 가져다 먹은 것만 갚아 해도 이해 못갈림* 농사지은 것을 모두 떨어 바쳐야 할 판이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싹 거절을 당하고 나온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을 식누렇게 뜯 얼굴을 한 채 “불이야!”하고 외치는 듯한 큰아들 일현의 부르짖음에 따라 골목을 나서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허영게 뒤따르는 것을 안 일현은 곧장 마름 집의 대문을 건어차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동냥은 못 주드라도 바가지는 안 깨사 쓸 것 아니냐, 이 살췍이 새끼들아.”하고 외쳤다. 그러나 일현은 마당 안으로 들어서지도 못하고, 사랑채에서 달려 나온 두 머슴놈에게 팔을 붙들리기가 무섭게 대문 밖으로 끌리어 나왔고, 그들이 휘둘러 엮어버리는 대로 나가 거꾸러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본 막동이 달려들어 그 머슴들을 하나씩 둘러엮고 후려쳐버렸다. ㉡씨름판이 열릴 때마다 송아지를 끌어오곤 하던 막동이라, 이 봄 들어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다 하지만 성난 호랑이가 달려드는 개들을 각각 앞발 하나씩으로 쳐서 엮어버리는 것처럼 간단히 처리해버린 것이었다. 그러자 하얗게 모인 마을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마름놈 죽여라.”하고 소리쳤고, 막동이는 대문을 박차고 뛰어들어갔다. 마름영감은 육십이 가까운

나이인데도 벌써 한길에 넘는 담장을 뛰어 도망가버리고 없었기 때문에, 막동이는 그길로 마을 앞에 있는 마름네 못자리 논으로 달려가 분풀이를 했던 것이었다. 자운영 받을 쿵쿵 밟고 뒹굴면서 쥐어뜯었는데, 그를 뒤따라온 마을 사람들이 우우 몰려들어 삼시간에 자운영을 모두 짓몽개버렸다. 더 이상 밟아 뭉겔 자운영의 푸른 잎사귀가 하나도 없게 되자, 마을 사람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이 도둑놈 곳간을 털어다가, 우리 밥이라도 한 그릇씩 해 묵어보세” 하며 부추겼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마름 집으로 우우 몰려가 곳간 문을 열어젖히고 거기 쌓여 있는 나락이며 보리며를 퍼내 가기 시작했다.

“위메 위메 어째사 쓸꼬, 왜들 이라요, 왜들 이래애.”

㉔이 어미 혼겁을 한 채 마을 사람들을 떠밀어내면서 말렸지만, 그들은 굶주린 이리 떼처럼 곳간을 파고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 여자의 힘으로는 막아낼 수 없는 일이었다.

이윽고 그 곳간을 다 털어낸 마을 사람들이 참봉네 곳간으로 가고 나서던 무렵, 방망이를 든 순사들을 앞세운 마름영감이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눈치가 썩 청년들은 담장을 넘어 도망을 쳤는데, 거기에 막동이기도 끼여 있다는 것을 알고 우선 이 어미는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러나 미처 도망가지 못한 청년 대여섯과, 나락이나 보리를 퍼서 이고 나오던 아낙네와 영감네들 몇 사람이 함께 끌려간 것이 자꾸 마음에 걸리던 것이었다. 이 일이 어떻게 터졌는가를 따지다 보면 자기 아들 막동이가 걸려들게 마련일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날, 어디로 피신했다가 들어오는 것인지, 옷자락에 찬 이슬을 묻힌 채 한밤중이 가까워서 들어온 막동이가, 자기 대신 잡혀간 청년들을 끌어내기 위해 주재소로 가겠다고 했을 때, ㉕이 어미는 혀가 짙게 짙도록 당분간 원대 나갔다가 이 일이 잠잠해지거든 들어오는 것이 좋을 게 아니냐고 얼러댔었다.

“다 쓸데없어야, 내가 우선 살고 봐사제. 니가 언제 마름네 곳간에서 나락 퍼가라고 했디야? 즈그들이 괜히, 니가 쫓아 들어가는 것을 뒤따라 들어가갖고 그랬제?”

그래도 자꾸 고개를 저으며, 혼자 몸을 멀리 피해버린다는 것은 체면이 아니라고 버티던 막동이였지만, 이 어미가 울면서 “니가 나 죽는 거 불라고 그러냐? 나는 느그들 푸덕푸덕 성한 거 보고 사는 것이 낙인디, 니가 가막소에 가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하고 하소연하는 데는 ㉖그놈도 더 어찌지 못하고, 노비 몇 닢만 구해다 달라고 하였다. 이 어미가 이날 새벽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쌀 다섯 되 값을 간신히 구해다 잡혀주자, 이젠 다시 고향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집 문을 뚫던 것이었다.

〈한승원, ‘어머니’〉

- * 보릿가을 : 익은 보리를 거두어 들임
- * 색깔이 : 봄에 양식이 귀할 때 묵은 곡식을 꾸어 주었다가 가을에 햇곡식이 나면 그것으로 바꾸어 받는 일. 또는 그 곡식
- * 못갈림 : 베어 놓은 벼단을 지주와 소작인이 절반씩 나누어 가짐

2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의 회상을 통해 갈등 해소의 단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삽화 형식을 통해 다양한 인물들의 경험을 나열하고 있다.
- ③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일상적 삶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 ④ 공간적 배경의 묘사를 통해 사건의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작품 밖의 서술자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2. ㉑~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 ‘이현’이 사건 현장에 없었던 이유를 보여준다.
- ② ㉒ : ‘막동이’가 원래 힘이 좋은 인물이었다는 점을 드러낸다.
- ③ ㉓ : ‘마름’의 행동에 대한 ‘어미’의 부정적 인식을 보여준다.
- ④ ㉔ : 아들의 안위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어미’의 마음을 보여준다.
- ⑤ ㉕ : ‘막동이’가 ‘어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를 따르고자 했음을 나타낸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어머니〉의 시대적 배경은 일제 강점기 농촌의 황폐화가 심해지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 지주를 등에 업고 농민들을 착취했던 계층은 마름이었는데, 이들은 농민들의 입장을 헤아리기보다는 궁핍한 상황에 부닥쳐 있었던 농민들을 괴롭혀 원망의 대상이 되곤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일제에 협력하는 데 앞장서기도 하였다.

- ① 순사들이 마름영감을 앞세우고 징용 보낼 남자들을 잡으러 나왔다는 점에서 일제에 협력하는 데 마름이 앞장섰다는 점을 알 수 있군.
- ②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일현을 따라 나섰다는 점에서 마름을 원망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을 알 수 있군.
- ③ 아들들이 차라리 징용에 끌려가 끼니를 거르지 않는 것이 나았겠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농민들이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군.
- ④ 마름네 자운영 받을 얼씬거리다가 머슴들에게 머리채를 잡힌 아낙네가 셀 수 없었다는 점에서 마름이 농민들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군.
- ⑤ 마을 사람들이 마름 집에 색깔이를 얻으러 갔다가 거절당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마름이 지주를 등에 업고 못갈림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농민을 착취했다는 점을 알 수 있군.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도술이 능한 선비였던 김 주부는 간신들의 위협으로 인해 딸 매화를 남장시켜 길에 버리고 구월산으로 도피한다. 매화는 조 병사에 의해 거두어지면서 신분을 감추고 그의 아들 양유와 함께 공부하며 성장하였다. 양유의 계모인 최 씨는 성품이 악한 인물로서 매화를 자기 동생과 혼인시키려 한다.

병사가 매화를 불러서 조용히 물어서 말하기를,

“너를 보고 여자라 하니 정말 이상한 일이다.”

하고 수없이 탄식하거늘 매화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되,

“소녀가 어찌 어른을 속이겠습니까? 저는 정말 여자입니다. 부모를 이별하고 저 자신을 감추려고 남자의 옷을 입었으니 마땅히 죄를 받겠습니다.”

하고 수없이 탄식을 하더라.

병사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고 한편으로는 크게 기뻐서 더욱 사랑하며 하는 말이,

“오늘부터 너는 안채에 들어가 밖으로 나오지 말아라.”

하고 매화를 데리고 안채로 들어가며 최 씨 부인을 대하여 말하기를,

“매화가 여자라고 하니 어찌 사랑스럽지 않겠는가?” 하고,

“여자의 옷을 만들어 입히고 여자의 행실을 가르치소서.”

하시며 또 서당으로 들어가 양유를 불러서 말하기를,

“매화는 여자라고 하니 이후에는 매화와 함께 같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남녀칠세부동석이라 하였으니 어찌 예절을 지키지 아니하겠는가?” 하시며 수없이 당부하더라.

이때 매화는 여자의 옷을 입고 안채에 거처하는데 인물이 뛰어나서 구름 사이의 밝은 달이 사람의 얼굴을 비추는 듯 하더라.

양유는 글방에 혼자 앉아 공부에는 뜻이 없고 다만 매화의 생각뿐 이더라. 아름다운 창 밖의 밝은 달을 바라보며 빈 방에 혼자 앉아 한탄하는 말이,

“매화야 너는 무슨 일 때문에 남자의 옷을 입고 나를 속였느냐? 부모의 명령이 이리하니 나는 누구와 더불어 공부하며 누구와 더불어 논다는 말인가?”

이렇게 탄식할 때 최 씨 부인이 매화의 생김새를 탐내어 매일 사랑하더니 흠아비가 된 자신의 동생과 매화를 결혼시킬 생각을 가지고 서로의 집에 사람을 보내어 소식을 전하면서 그 꾀를 이루려고 하더라.

하루는 병사가 안채에 들어와 최 씨 부인에게 말하기를,

“얼마 전에 관상 보는 사람이 와서 이리이러한 말을 하고 갔습니다. 내가 어찌 자식 죽을 일을 보고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매화는 내 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양유와 동갑이고 또한 인물이 비범하니 결혼시키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최 씨가 얼굴빛을 바꾸면서 대답하기를,

“서방님은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양유는 사대부의 자식이고 매화는 유리 걸식하는 비렁뱅이 여자입니다. 어찌 근본도 알지 못하고 다만 그 외모만 탐내어 혼사를 하겠습니까?” 하니 병사가 한참동안 생각하다가 말하기를,

“부인의 말씀이 마땅합니다.”

하고 언젠가 날을 잡아 장단골 연화동을 찾아가 매화의 근본을 알아보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바깥채로 나가더라.

최 씨가 이 말을 듣고 크게 근심하여 자기 동생을 불러 말하기를,

“병사가 장단골 연화동을 찾아가서 매화의 근본을 알고자 하니 네가 먼저 그 곳을 찾아가서 재물을 많이 주고 사람을 매수하여 매화를 천한 집안의 자식이라고 병사가 갔을 때 속이면 매화는 저절로

너의 짝이 될 것이니 어찌 저렇게 인물 좋은 여자를 그저 두고 남에게 빼앗기겠는가?”

최 씨 동생이 이 말을 듣고 재물을 가지고 장단골 연화동을 찾아가 사람들을 매수하여 길가에 머물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살피더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병사는 연화동을 찾아 길가의 사람들로부터 매화가 천한 집안의 자식이라 전해 듣는다. 집으로 돌아온 병사는 혼사를 거두고 양유를 불러 매화와 만나지 말라고 명한다.

양유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듯하여 방 가운데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말하되,

“매화와 함께 한평생 함께 살자고 작정하였더니 매화가 천인이란 말이 웬 말이냐?”

밤낮으로 탄식할 때 마음 깊은 곳에 병이 생겨 눈물로 세월을 보내더라.

이 때에 매화는 이 말을 듣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서럽게 울면서 말하기를,

“나의 팔자는 무슨 일 때문에 부모를 이별하고 남의 집에 의지하였다가 천한 집안의 자식이라 하고 구박이 극심하니 이팔 청춘 여자의 몸이 어디로 가야한다는 말인가?”

하며 옥같은 아름다운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그치지 못하더라.

옥난이 또한 슬픔을 머금고 붉은 치마 자락으로 눈물을 씻으며

“마오 마오 울지 마오. 남자의 우는 모습을 나는 차마 보지 못하겠소. 아무리 서러워한들 그 서러움을 누가 알며 아무리 탄식한들 남자의 근본을 누가 알아주겠는가? 제발 덕분에 울지 마오.”

이렇게 위로할 때 매화는 눈물을 그치고 편지 한 장을 급히 써서 옥난에게 주며 말하기를,

“이 글을 서당에 전하라.”

하니 옥난이 받아 손에 들고 서당으로 급히 나가 도련님 앞에 드리니 양유가 그 글을 받아보니 그 글에 말하기를,

[A] “백옥은 진흙 속에 묻혀 있고 밝은 달은 검은 구름 속에 묻혀 있으며 매화는 흰 눈을 뒤집어쓰고 있으니 어찌 한 가지 높은 수양 버들을 생각하겠는가? 분하도다 분하도다. 거문고 탈 줄 모르는 것은 알지 못하고 도리어 오동나무 판자만 나무라도다.”

하였거늘 양유가 글을 다보고 슬픔을 머금고 하는 말이,

“매화는 사대부의 후예가 분명한데 어찌 천인이라 한단 말인가? 부친이 늙어 망령이 나서 내가 죽을 줄을 모르시니 어찌 원통하지 않겠는가?”

하고 답장을 써서 보내더라.

이때에 매화가 답장을 보니 그 글에 말하기를,

[B] “백옥은 진흙에 묻혀 있어도 닦으면 다시 빛이 나고 밝은 달은 검은 구름에 싸여 있어도 다시 밝아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눈 속에 핀 매화야 서러워 마라. 따뜻한 봄철이 돌아오면 긴긴 봄날 매화 되어 꽃을 탐내는 벌과 나비와 인연을 삼고 꾀꼬리로 인연을 맺어 백년까지 함께 하리라.”

하였더라.

〈작자 미상, ‘매화전’〉

2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조 병사는 매화가 여자임을 알고 실망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 ② 양유는 조 병사가 얘기해주기 전부터 매화가 여자임을 알고 있었다.
- ③ 최 씨는 자신의 동생과 매화를 결혼시키기 위해 조 병사를 연화동으로 가도록 유도했다.
- ④ 매화는 천한 집안의 자식임을 감추고 남의 집에 의지하여 살아야만 하는 상황에 낙담했다.
- ⑤ 양유는 매화의 신분에 대해 아버지로부터 전해 듣고도 매화가 사대부의 후손일 것으로 생각했다.

2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계모형 가정소설은 계모의 영입에서 파생되는 가정 내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소설을 말한다. 이러한 소설은 주로 악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계모가 등장하는데, 이때 가장의 존재는 대체로 무기력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계모와 전처소생과의 갈등이나 부자간의 갈등과 같이 가장의 재혼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갈등은 당시 민중의 현실적인 가정 문제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매화전>은 이러한 계모형 가정소설의 성격에 혼사 장애 모티프가 결합한 애정 소설이자 가정소설이라고 볼 수 있다.

- ① 양유와 매화의 사랑을 최 씨가 방해하는 모습에서 혼사 장애 모티프가 결합한 양상을 엿볼 수 있군.
- ② 최 씨의 계략에 넘어가 매화의 근본에 대해 오해하는 조 병사에게서 무기력한 가장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③ 동생을 시켜 재물로 사람들을 매수하여 자기 뜻을 관철하려는 최 씨의 모습에서 악인으로서의 면모를 엿볼 수 있군.
- ④ 매화를 동생과 결혼시키기 위해 근본이 천한 신분으로 몰아가는 최 씨의 모습에서 계모와 전처소생과의 갈등을 엿볼 수 있군.
- ⑤ 매화와와 사랑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 양유가 부친을 원망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에서 가장이 계모를 들임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자간의 갈등을 엿볼 수 있군.

2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와 [B]는 모두 이름을 중의적으로 활용하여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 ② [A]와 [B]는 모두 자연물의 모습을 통해 자기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 ③ [A]는 [B]와 달리 자신과 상대방을 동물에 비유한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 ④ [B]는 [A]와 달리 긍정적 미래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 ⑤ [B]는 [A]와 달리 명령적 어조를 활용하여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27~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 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황지우, '너를 기다리는 동안'〉

2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감각적인 심상을 통해 대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②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정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③ 어둠과 밝음의 대조를 통해 긍정적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 ④ 속성이 비슷한 사물을 나열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⑤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2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은 대상에 대한 절실한 기다림의 정서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기다림과 관련한 개인적인 경험을 보편적인 경험으로 일반화하고 있다. '너'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화자는 '너'에 대한 기다림을 설레는 기대감과 행복감으로 표현함으로써, 만남이 이루어질 미래를 긍정하며, 이를 통해 현재의 기다림도 긍정하는 의지적인 태도를 보인다.

- ① '모든 발자국은 /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는 화자의 감정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겠군.
- ②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는 화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 보편적인 경험으로 일반화될 수 있음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③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 곳'은 화자가 기대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장소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는 대상과의 만남이 궁극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좌절감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는 기다림 속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드러낸 것이겠군.

29. ㉠과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한계를 다양한 감각을 결합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② 대상의 객관적 특성을 관용적 표현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 ③ 대상의 내면적 특질을 외적인 속성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④ 화자의 내적 고민을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⑤ 화자의 정서를 사물을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0~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무실의 불이 꺼지고 아파트의 내실이 밝아진다. 상범이 들어와 손에 들고 있는 큼직한 십자가를 벽에 단다. 문 여사가 나와 그의 도어를 노크한다. 상범이 문을 연다.

상범 : 아, 안녕하셨어요?

문 여사 : 계셨군. 내 정신 좀 봐. 우리 용자 시집 갈 준비하느라고 그동안 김치도 제대로 못 담갔네.

상범 : 괜찮습니다. 바쁘실텐데.

문 여사 : 아직 못 들었소?

상범 : 뭣요?

문 여사 : ㉠아 글썄, 이 아파트의 관리인이 저녁에 돌아가셨대요.

상범 : 네? 관리인이요?

문 여사 : 본래 심장이 약하신 분이었는데…….

상범 : 그럼 또 심장마비로…….

문 여사 : 그래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참 안됐어요. 식구도 많은데…….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들어 있는 사람들끼리 돈을 좀 모아서 조위금이라도 갖다 드릴까 해서요…….

상범 :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문 여사 : 여유가 있는 대로 내일 아침 저희 방으로 갖다 주세요.

상범 : 그러죠. (문 여사가 나가려고 한다.) 저…… 어떻게 돌아가셨다죠?

문 여사 : 식사를 하시다 그대로 쓰러졌다는걸요.

상범 : 마지막에 남긴 말도 없이 유언도 없으셨군요.

문 여사 : 유언이 다 뭉니까 그대로 폭 쓰러졌다는데.

상범 : ㉡그대로 폭 쓰러졌군. 그럼 내일 아침 뵈겠습니다.

문 여사 : 네, 전 이 방 저 방을 좀 돌아다녀야 합니다.

문 여사가 나간다. 상범은 소파 밑에서 관리인이 맡긴 돈 보따리를 꺼낸다.

상범 : (관객에게) 이 돈! 5만 원! 관리인이 저에게 맡긴 귀중한 돈입니다. 자 이 돈을 어떻게? 밥 먹다가 폭 쓰러졌다니 이 돈에 대해 말할 여유도 없었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돈은 비밀로 해 달라고 했으니까 이 돈에 대해 말을 했을 리가 없어……. 내 옛 상식에 따를 것 같으면 이 돈은 관리인의 미망인에게 돌려 줘야 하겠지만…… 아니지, 이미 내 상식은 버리고 새 상식에 따라 생활하고 있는 이 마당에 돈을 돌려 줄 필요가 없어. ㉢본시 관리인은 자기의 아내를 싫어했으니까. 오히려 나를 좋아했어. 그러니 이 돈을 내가 쓰는 것을 더 좋아할 거야. 질서 정연한 논리야.

(또 다시 관객에게) 그래서 이 돈은 제가 쓰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내 동생, 그 이상한 이름의 회사에 들어갈 시험 준비에 골몰하는 내 동생을 시내 어떤 다방에서 만났습니다.

상출이 무대 전면 좌측에 의자를 들고 들어와 앉는다. 현소희가 조그만 티 테이블을 들고 들어온다.

소희 : 무슨 차 드실까요?

상출 : …… 저…… 사람을 기다리는데…… 그 사람이 온 다음에 같이 들겠습니다.

소희 : 좋도록 하세요.

소희가 들어간다. 상출은 주머니에서 책을 꺼내 연필로 줄을 그으며 읽는다. 시험 준비다. 잠시 후 상범이 의자를 갖고 들어와 앉는다.

상범 : 오래 기다렸니?

상출 : 아니.

상범 : 다방에서도 시험 공부야?

상출 : 할 수 있나.

상범 : 차 들었니?

상출 : ㉣형이 안 오면 혼날라고? 주머니엔 버스표 두 장밖에 없어. 근데 왜 나오라고 했어?

상범 : (뒤로 몸을 돌려 소리지른다.) 여보시오! 파인 주스 두 개만 부탁합니다!

상출 : 한 잔에 50원인데…….

상범 : 괜찮아. 나……. 경리과장 됐다.

상출 : 뭐? 형이? 경리과장? 굉장한데! 어떻게 벌써?

상범 : 사장이 날 신임하지. 또…… 나도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웠고…….

상출 : 봉급도 두 배쯤 오르겠네?

상범 : 봉급이 문제냐. 그런데…… 너도 그 입사 시험인가 하는데 합격되려면…… 운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상출 : 무슨 운동?

상범 : 돈을 좀 써야 하지 않을까? 세상은 다 그런거야. (안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상출에게 쥐어준다.) 이걸 5천 원인데…….

상출 : 5천 원?

상범 : 돈을 좀 쓰란 말이야.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단다. 문제는 방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앞문으로 들어가면 뒷문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아냐. 어떻게 해서든지 그저 들어가면 돼.

상출 : …… 아이…… 나 자신 없는데, 이 돈을 가지고 누굴 찾아가 뭣을 어떻게 해?

상범 : 그건 네가 좀 연구해 봐야지.

상출 : (돈을 테이블 위에 도로 내밀면서) ㉤그럼 더 복잡한데. 공부 하기도 바쁘는데 그 일까지 하려면 형편없이 복잡해지겠는걸.

상범 : 공부를 작작 하면 되지!

상출 :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시험을 치지?

상범 : 앞뒤가 막혔군. 너도 새 상식이 필요해! 새 상식이.

상출 : 뭐?

상범 : 뻘어. 뻘어!

〈이근삼, '국물 있사옵니다'〉

3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소재를 사용하여 인물의 심리와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인물의 특정 행동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 ③ 대사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어 가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극 중 시간의 흐름을 역전하여 과거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 ⑤ 음향 효과를 통해 무대의 신속한 전환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문 여사는 무대 밖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② ㉡에서 상범은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 ③ ㉢에서 상범은 주관적인 근거를 들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다.
- ④ ㉣에서 상출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음을 일상적 소재를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⑤ ㉣에서 상출은 상범의 비윤리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32. <보기>를 바탕으로 [A]~[C]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극작가 브레히트는 자신의 서사극에서 ‘서사적 해설자’를 통해 서사를 진행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서사적 해설자는 극 중 인물과는 별도로 존재하면서, 관객이 극중 현실을 낯설게 보게 함으로써, 극에 대해서 이성적이고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국물 있습니다> 역시 이러한 서사를 진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서사적 해설자와 유사한 극중 인물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하지만 브레히트의 서사적 해설자와 달리, 극의 인물이 서사적 해설자로 기능하기 때문에, 인물이 자신과 관련한 사건들을 관객을 향한 이야기 형식을 통해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객석과 분리된 시·공간으로서의 무대의 한계를 벗어나 극중 세계에 관객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분리되거나 독립될 수 있는 장면들은 자신의 회상과 서술을 통해 통합하고 있다. 또한, 서사적 해설자인 인물이 극중 인물의 시점을 취하면서 주관적인 감정과 내면을 표출한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러한 점들에서 서사의 진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함에도 이 작품에서의 서사적 해설자의 기능은 브레히트가 말한 서사적 해설자와는 차이가 있다.

- ① [A]에서 상범이 관리인이 맡긴 돈과 관련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전과 이후의 장면들을 통합하는 기능을 하는군.
- ② [A]에서 상범이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과 내면을 드러내는 것은 브레히트의 서사적 해설자 개념과는 다르군.
- ③ [B]에서 상범이 상출과 만나기로 하는 것은 무대를 객석과 분리하여 극중 세계에 관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군.
- ④ [A]와 [B]에서 상범이 관객에게 말을 건네는 것은 극중 인물이 서사적 해설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군.
- ⑤ [B]와 [C]에서 상범이 관리인의 돈을 자신이 쓰기로 하는 것은 상범이 극중 인물로서의 면모를 보여 주는군.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알레르기성 비염은 괴로운 병이다. 들이마시는 공기 중 코 점막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이 포함되었을 때 코감기가 발병하며 이에 따른 증상이 나타난다. 코감기는 일주일 정도 있으면 회복되는데 비해 알레르기성 비염은 언제 회복될지 기약이 없다.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등을 ‘알레르기 질환’이라 부르는데, 선진국으로 진입할수록 알레르기 질환은 급증한다. 이는 보건 위생 환경이 좋아지면서 감염성 질환은 감소하는 반면, 알레르기 질환은 생기기 쉬운 신체 조건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2002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선진국에서는 알레르기 질환이 2~3배 증가하여 소아들의 15~20%가 이 질환으로 고생한다고 알려졌다. 그렇다면 선진국에서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위생 가설’이다. 이 가설은 알레르기 질환의 증가는 사람의 장에 서식하는 병원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기생충이 알레르기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실제로 기생충이 많은 나라에서는 알레르기 질환이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 임상 기생충학 책임자였던 에릭 오티슨은 남태평양 산호섬인 마우케 섬의 주민들을 조사했는데, 1973년에는 주민 600명 중 3%만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1992년에는 알레르기 환자의 비율이 15%로 증가한 것을 관찰했다. 그런데 그 기간 기생충 박멸을 위한 각종 의료 시설이 세워져 기생충 감염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30%가 넘는 기생충 감염률이 5%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면 알레르기 질환은 어떻게 발생하며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을까? 우리 몸에 있는 항체는 보통 병원균이 신체에 침입했을 때 수가 많아지면서 비만 세포*와 결합하여 히스타민을 분비해서 면역 작용을 한다. 그런데 항체가 잘못 작용해서 외부의 병원균이 침입하지 않았는데도 항체의 수가 많아지면서 비만 세포와 결합하여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때가 있다. 이런 경우에 우리 몸에 해로운 증상이 나타난다. 즉 우리 몸을 보호해야 하는 항체가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인데, 이런 현상을 ‘자가 면역’이라고 한다. 이런 현상을 통해 발생하는 병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 알레르기 질환이 이에 해당한다. 알레르기 질환은 항체의 한 종류인 ‘면역 글로불린 E’(IgE)가 비만 세포와 결합하여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것을 말한다. 이 히스타민이 혈관을 확장하고 기관지를 수축시켜 알레르기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인체에 병원균이 침입했을 때 면역 작용을 위해 항체의 수가 많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알레르기 질환에 걸려도 항체 IgE의 수가 많아진다. 그런데 기생충에 감염되었을 때에도 IgE의 수가 증가한다. 하지만 기생충에 감염되었을 때의 IgE는 비만 세포와 결합해도 히스타민이 분비되지 않는데, 이 IgE가 비만 세포와 모두 결합해 버리면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는 IgE가 붙을 자리가 없어짐으로써 알레르기 질환의 발병이 억제된다.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통해 기생충 감염과 알레르기 질환의 상관 관계를 설명하기도 한다. 사이토카인은 세포 사이에 신호를 전달하는데, IL이라고 표기한다. 기생충에 감염되면 사이토카인 중 하나인 IL-10이 조절 B세포에서 분비된다. IL-10은 인체의 반응을 전반적으로 억제한다. 그래서 우리 몸이 알레르기 항원에 반응하는 것을 억제하고, 질병의 증상도 완화시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만손주혈 흡충’이라는 기생충에 걸린 사람은 IL-10의 혈중 농도가 아주 높아져 알레르기 항원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기생충을 치료하자 IL-10 생산이 감소하고,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반응이 증가하

였다.

그렇다면 알레르기 질환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알레르기를 없애기 위해 억지로 기생충을 체내에 주입하는 것은 위험이 따르므로 기생충의 추출물을 주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기생충을 접시에 담아 따뜻한 곳에 놓아두면 기생충이 몸 안에 있는 물질을 밖으로 배출하는데, 이걸 기생충의 분비·배설 항원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정제하여 몸 안에 투여하면 큰 문제가 없다. 한 연구자는 ‘쥐모양선충’이라는 기생충의 단백질을 실험용 쥐에 투여한 후 천식을 일으키는 물질을 주입하는 실험을 해 보았다. 일반 쥐가 천식 증상을 보인 것과는 달리, 기생충의 단백질을 투여한 쥐는 천식 증상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 비만 세포 : 체조직 속에 존재하며 세포질내에 많은 호염기성 과립을 보유하는 세포

33. 윗글의 제목과 부제로 적절한 것은?

- ① 알레르기 질환의 특징과 치료 방법
— 구체적인 치료 사례를 중심으로
- ②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 과정과 특성
— 기생충 감염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 ③ 알레르기 질환의 특징과 예방법
— 다른 질병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 ④ 알레르기 환자의 지역별 분포와 특징
— 국가별 기생충 감염 환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 ⑤ 알레르기 질환의 폐해와 치료 방안
— 알레르기 질환이 유발하는 사회적 폐해를 중심으로

3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IgE는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에 해당한다.
- ② 기생충에 감염되었을 때의 IgE는 비만 세포와 결합하지 않는다.
- ③ 알레르기 질환은 항체가 잘못 작용하여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이다.
- ④ 일반적으로 보건 위생 환경이 좋은 선진국의 알레르기 환자가 많다.
- ⑤ 알레르기 질환에 걸리거나 기생충에 감염되면 IgE의 수가 많아진다.

35. 윗글을 읽은 사람이 <보기>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한 연구팀은 IL-10의 혈중 농도가 높을 경우, 뇌졸중으로부터 뇌의 손상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뿐만 아니라 면역 세포인 조절 B세포에서 분비된 IL-10이 비만 세포의 주요 신호전달인자의 활성을 억제하고 히스타민과 염증성 물질의 분비를 억제하여 급성 알레르기 반응을 조절하는 것을 확인했다.

- ① IL-10가 늘어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히스타민 분비가 줄어들겠군.
- ② 기생충에 감염되었을 경우 IL-10이 분비되어 뇌졸중의 증상이 완화될 수 있겠군.
- ③ 기생충에 감염되었을 경우 조절 B세포의 활성이 억제되어 면역 반응이 줄어들겠군.
- ④ ‘만손주혈흡충’에 걸리면 IL-10의 분비가 증가하여 염증성 물질의 분비가 줄어들겠군.
- ⑤ 기생충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통해 IL-10의 생산을 늘리고 비만 세포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겠군.

36. 윗글의 [위생 가설]의 관점에서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알레르기 질환은 기생충 감염률을 증가시킨다.
- ② 기생충 감염이 알레르기 질환의 감염률을 높인다.
- ③ 기생충 감염이 감소하면서 알레르기 질환이 늘어났다.
- ④ 알레르기 감염의 증가로 인해 기생충 감염률이 낮아졌다.
- ⑤ 알레르기 질환이 감소함으로 인해 기생충 감염률이 떨어졌다.

[37~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광고에서 크리에이티브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광고가 다루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매출을 높이고 소비자의 ㉠공감을 끌어내기 위한 작업을 일컫는다. 크리에이티브는 제품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식을 적용하는데, 제품의 마케팅 전략에 의해 선택되는 구체적인 표현 방법을 크리에이티브 기법이라고 한다. 크리에이티브 기법에는 ‘위협 소구’, 유머 소구, 패러디 소구, 온정 소구 등이 있다.

㉠위협 소구는 소비자에게 일종의 불안이나 공포심을 ㉡조성하여 제품에 관해 관심을 유도하는 기법을 말한다. 특히 위협 소구는 건강이나 재산 등의 손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제품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외에도 사회적 및 심리적 동기와 관련된 보다 미묘한 위협도 광고에 사용될 수 있다. 위협 소구를 사용하는 광고주들은 단순히 광고에서 소비자에게 위협을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위협 소구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에게 위협을 주어 관심을 유도한 후 자신의 제품이나 브랜드가 그러한 위협을 확실히 해소해 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하여 소비자의 수용을 이끌어 내야 한다. 만약 광고가 소비자의 위협을 해소해 준다는 어떤 확신을 주지 못하면 소비자는 그 메시지를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광고주가 원하는 소비자의 메시지 ㉢수용을 이끌어 내려면 위협이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만일 위협 수준이 너무 낮다면 정서적 반응이 발생하지 않아서 소비자의 주의나 관심을 끌지 못할 수 있다. 반면 위협 수준이 너무 높으면 소비자는 자기방어를 위해 광고 자체를 회피하려고 할 것이다.

유머 광고에서 ㉣유머 소구는 소비자로 하여금 호감을 가지고 받아들이도록 이끄는 힘을 갖고 있다. 즉 유머 소구는 소비자에게 우리의 제품을 좀 더 친밀하게 설득해 줌으로써 소비자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최선의 무기이며, 오늘날과 같이 포화 상태에 이른 광고 환경에서 광고를 차별화시키고 소비자의 주의를 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유머 소구를 사용한 광고는 ‘이 제품은 이래서 좋다’라거나 ‘꼭 한 번 써보라’라고 권하는 직접적인 광고보다 오히려 ‘보는 즐거움’을 줌으로써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해 친숙함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일반적으로 광고에서 유머의 사용에 대해 찬성하는 쪽은 “유머가 주의와 기억능력을 증가시킨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유머는 광고주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고, 메시지의 설득력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쟁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 자신이 자사의 브랜드에 대해 반박하지 않도록 주의를 분산시킴으로써, 그들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도록 이끌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머의 사용에 부정적인 쪽은 만약 유머가 너무 지배적이면, 메시지의 이해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이고, 제품의 장점을 전달하지 못한

다는 것이다. 또한 유머 광고는 소비자들이 같은 농담을 반복해서 보고 듣는 것에 싫증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광고들보다 더 빨리 효과가 ④ 소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㉔ 패러디 소구를 사용한 광고는 소비자들이 제품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면서 제품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또한, 최근에는 이미 널리 알려진 기존 브랜드나 광고물을 패러디하는 광고, 그리고 기존 영화장면을 그대로 사용하는 광고도 등장하고 있다.

㉕ 온정 소구를 사용한 광고는 제품 광고에서 하나 이상의 캐릭터가 온정을 경험할 때 소비자들도 대리 경험을 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즉 온정 소구를 이용한 광고는 사랑, 가족, 또는 우정 관계의 직접 경험뿐 아니라 간접 경험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온정 소구는 한국인의 정서에 가장 ㉔ 부합하는 광고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으로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데, 가족을 포함해 학연, 지연, 그리고 혈연 등 정서적 측면을 유독 강조하는 문화가 있다. 따라서 온정 소구를 이용한 광고는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 문화권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 소구 : 광고에서 사람의 욕구를 자극시켜 구매 동기를 유발하는 것

3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러 광고 크리에이티브 기법을 통해 광고가 지닌 문화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 ② 광고와 관련된 개념을 소개하면서 광고의 크리에이티브 기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③ 매체에 따라 달라지는 제품 광고의 유형과 특성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④ 제품 광고가 판매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⑤ 제품 광고의 성공과 실패의 사례를 나열하여 제품과 광고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밝히고 있다.

3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어떤 소구를 사용할지 결정한 다음 제품의 마케팅 전략이 결정된다.
- ② 유머 소구를 사용한 광고는 광고의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효과가 있다.
- ③ 위협 소구를 사용한 광고는 소비자의 지적 능력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다.
- ④ 유머 소구를 사용한 광고를 제작할 때에는 예술 작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 ⑤ 위협 소구를 사용한 광고는 위협의 해소에 대해 소비자에게 믿음을 주어야 한다.

39. ㉑~㉕의 문맥적 의미를 활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 그는 동료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 ② ㉒ : 밝고 명랑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에 다 함께 동참하자.
- ③ ㉓ : 우리는 그들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 ④ ㉔ : 임진왜란 당시 많은 사찰이 소멸되었다.
- ⑤ ㉕ : 이번 인사 조치는 우리 회사의 철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40. ㉑~㉕을 사용한 광고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 초콜릿을 먹은 손으로 중요한 문서를 건네주었는데 그 문서에 초콜릿이 묻어 난처해 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손에 묻지 않는 초콜릿을 광고하는 경우
- ② ㉑ : 가게에 담배를 사러 들어오는 사람이 등장하는 장면에 '폐암 하나 주세요.'라는 문구가 제시면서 금연을 홍보하는 공익 광고의 경우
- ③ ㉒ :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 초콜릿을 반으로 나눠 큰 조각을 아들에게 건네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광고의 경우
- ④ ㉔ : 특정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그 영화에서와 동일한 복장과 말투로 '○○으로 모기를 미치도록 잡고 싶다.'라는 말을 하는 살충제 광고의 경우
- ⑤ ㉕ : 남편과 자식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아내의 뒷모습이 보이고 그 옆에 '○○ 고추장'이라는 로고가 찍힌 제품이 놓인 광고의 경우

41. 윗글과 <보기>를 종합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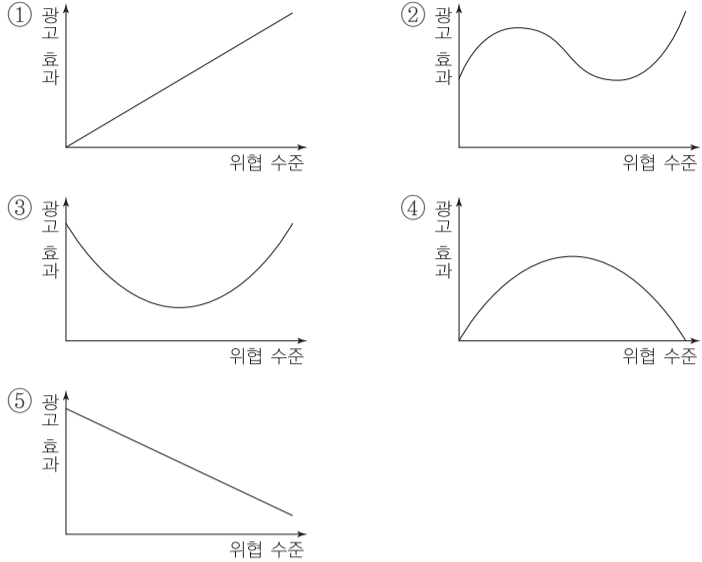
[3점]

<보기>

비교 소구는 자신의 브랜드와 상대 브랜드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을 유도하는 기법으로 선발 기업을 추월하려는 후발 기업으로서 기업이나 제품의 이미지의 열세를 만회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인 수치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실상과의 차이를 증명하는 것이 이미지의 열세를 수정하는 유력한 방법의 하나이고, 또 최소한 선발 기업의 브랜드와 자기 회사의 브랜드를 비교하는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만 있다면 후발 기업으로서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후발 기업이 선발 기업의 브랜드와 비교를 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그 두 브랜드가 서로 유사한 포지션에 있다고 간주하게 된다. 따라서 신규 브랜드는 비교 광고를 통해 자신의 포지션을 유리하게 구축할 수 있다.

- ① 위협 소구와 유머 소구를 사용한 광고는 비교하는 상대 브랜드가 필수적이지 않지만, 비교 소구를 사용한 광고는 경쟁 브랜드가 있어야 한다.
- ② 유머 소구와 온정 소구가 감성적 요소들을 드러내는 광고라면 비교 소구를 사용한 광고는 구체적인 수치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라고 할 수 있다.
- ③ 자기 회사의 브랜드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이끌어낼 필요성이 있다면 온정 소구를 사용한 광고보다는 비교 소구를 사용한 광고가 더 적합할 수 있다.
- ④ 유사한 제품을 나중에 개발한 회사에서 광고의 기법을 사용할 경우 온정 소구보다는 상대 브랜드와의 비교를 통해 구매를 유도하는 비교 소구를 사용한 광고가 효과적이다.
- ⑤ 패러디 소구를 사용한 광고는 자기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지만 비교 소구를 사용한 광고는 자기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와 상대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동시에 높인다.

42. 위협 소구를 사용한 광고에서 위협 수준에 따른 광고 효과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은?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세상(世上)의 버린 몸이 견무(畝畝)*의 늘거가니
 ㉠ 밭짓일 내 모르고 하는 일 무슨 일고
 이 중(中)의 우국성심(憂國誠心)은 년풍을 원하노라

농인(農人)이 와 이로되 봄 왔네 밭에 가새
 압집의 쇼 보잡고 뒷집의 따* 보내네
 두어라 내집부터 하라 남하니 더욱 도타

여름날 더운 적의 단따히 부리로다
 밭고랑 매자하니 땀흘려 땅에 듯네
 어사와 립립신고(粒粒辛苦)* 어니 분이 알아실고

가을희 ㉡ 곡석 보니 도흘도 도흘세고
 내힘이 날운 거시 머저도 마시로다
 이밧긔 천사만중(千駟萬鐘)*을 부러 무슴하리오

밤으란 사츨 꼬고 나죄란 똥*을 부여
 초가(草家)집 자바매고 농기(農器)점 차려스라
 내년희 봄온다 하거든 결의 중사(從事)하리라*

새배 빛나자 백설(百舌)*이 소뢰한다
 일거라 아해들아 밭 보러 가자스라
 밤사이 이슬 귀운에 얼마나 길었는고 하노라

보리밥 지어 담고 도트랏 갱*을 하여
 배골는 농부(農夫)들을 진시(趁時)에 머겨스라
 이해야 한 그릇 올너라 친(親)히 맛봐 보내리라

서산(西山)에 해 지고 풀 굿테 이슬난다
 호뽀는 돌너메고 달디여 가자스라
 이 중(中) 즐거운 뜻을 닐러 무슴하리오

〈이휘일, '전가팔곡(田家八曲)'〉

- * 견무(畝畝) : 밭이랑 사이 * 따 : 따비(농기구)
- * 립립신고(粒粒辛苦) : 곡식 한 알 한 알에 담긴 괴로움. 농사일의 고통
- * 천사만중(千駟萬鐘) : 천 대의 마차와 만 섬의 곡식. 부귀영화
- * 똥 : 똥풀 * 중사하리라 : 힘을 쓰리라(시작하리라)
- * 백설(百舌) : 온갖 새들 * 도트랏 갱 : 명아주 풀로 끓인 국

43.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가 처한 상황을 비현실적 상황에 빗대어 제시하고 있다.
- ②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화자의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 ③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여 화자의 의도를 제시하고 있다.
- ④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정서 변화를 우회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44. 윗글과 <보기>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전가팔곡'은 농가에서 부르는 8곡의 노래라는 의미이다. 화자는 벼슬을 멀리하고 농가에 귀의하여 농촌의 모습과 농민의 노고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사계절의 농사 과정을 통해 노동의 소중함과 공동체적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① 1수의, '세상'을 떠나 '견무'에 들어가는 모습에서 농촌에 귀의한 화자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겠군.
- ② 2수의, '압집', '뒷집'과 함께 농사일하는 모습에서 공동체적 삶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3수의, 땀 흘리며 '밭고랑'을 만드는 모습에서 농민들의 노고를 떠올릴 수 있겠군.
- ④ 4수에서, '내힘이 날운' 것이 맛이 좋다는 것은 자신이 이룬 노동의 소중함을 높게 평가하는 화자의 태도로 볼 수 있겠군.
- ⑤ 5수에서, '초가집'을 정비하고 '농기'를 관리하는 모습은 농사일을 준비하는 농촌의 봄 풍경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45. ㉠와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와 ㉡ 모두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움이 나타나 있는 대상이다.
- ② ㉠와 ㉡ 모두 미래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전망을 유도하는 대상이다.
- ③ ㉠와 ㉡ 모두 화자의 일상적 삶과 관련지을 수 있는 상징적 의미가 부여된 대상이다.
- ④ ㉠는 화자가 관심을 두지 않는 대상이고, ㉡는 화자에게 만족감을 주는 대상이다.
- ⑤ ㉠는 화자가 세속적 공간으로 복귀하는 계기가 된 대상이고, ㉡는 화자가 농가를 벗어나게 해 주는 대상이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